

내 이름은 뽀뽀 롱스타킹

[저자소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1907-2002)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작가로 「내 이름은 뽀뽀 롱스타킹」, 「사자왕 형제의 모험」으로 대표되는 작품들은 아동문학의 고전으로 일컬어짐. ‘어린이책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 스웨덴 아카데미 대상 등 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영화와 TV 드라마로 제작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 방영됨. 어린이, 여성, 동물과 같이 약하고 억압받는 존재들을 위해 목소리를 낸 사회활동가이기도 함(‘어린이 차별 금지법’, ‘린드그렌 법’). 2002년 사망 후 스웨덴 정부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을 제정하여 업적을 기리고 있음. 2005년에는 관련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됨

[저술배경]

딸이 병으로 누워있을 때 즉흥적으로 “뽀뽀 롱스타킹”이란 이름을 짓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함. 엉뚱한 이름에 어울리는 특별한 아이를 상상하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였고 이를 엮어 1945년에 출간.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 권위적인 아동교육관, 규율과 통제가 강했던 시기임. 당시의 권위적인 교육과 사회규범에 도전하면서, 아이도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이며, 상상력과 개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담아 저술함. 특히 저자의 삶과 경험이 작품에 많이 반영됨.

[감상/좋았던 문장]

엄청난 괴력, 금화로 가득한 재력, 통제자(부모)의 부재, 자신만의 공간(집)을 갖고 자유를 누리면서도 정의롭게 행동하는 뽀뽀가 묘하게 부럽기도 합니다. 자유, 우정, 상상력, 용기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1. “엄마, 내 걱정은 마세요. 난 잘하고 있으니까”/“모두들 안녕. 내 걱정은 마세요. 난 언제나 잘해 나갈 테니까”.
2. “내일 또 놀러 오려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집에 안가면 다시는 못 놀러 올 것 아냐. 그럴 순 없잖아”/“그럼 얼른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와”
3. “낭비하지 않으면 부족하지도 않다”.

[질문]

1. 뽀뽀와 아니카&토미는 성향이 반대인 아이들입니다(FP vs TJ처럼). 살면서 내가 만들어 둔 테두리 밖의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나요?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2. 아니카와 토미의 완벽한 보호 속에서 규칙을 지키며 자라는 삶과 보호자는 없지만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뽀뽀의 삶 중 어린이에게 더 행복한 삶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3. 마지막에 뽀뽀는 커서 해적이 될 거라고 하면서 “너희는?”이란 질문을 던지며 우리에게도 미래를 상상해 보게 합니다. 뽀뽀는 어른이 되어서도 모험과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보이는데요, 만일 우리에게도 강한 힘과 경제적 자유가 있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